

송중기 “태양의 후예 생애 최고의 대본”

“좋은 대본을 연기로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

15일 밤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2016’에서 스타일 아이콘으로 선정된 텔런트 송중기(31)의 이 말 한 마디가 대한민국 여성을 뒤흔들었다.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김원석·연출 이응복)에서 송중기가 연기하는 군인 ‘유시진’의 직업 특성을 살린 말버릇이다. 시청률 30%에 육박하는 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하지 말입니다’가 유행어가 됐다.

“연기를 하면서 그 말투가 격정되거나 연기하기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대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말투거든요. 오히려 시상식에서 유행어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게 어색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송중기는 특전사 대위이자 일파팀 팀장 ‘유시진’으로 완벽히 변신했다. 지난해 5월 실제 전역과 동시에 ‘태양의 후예’로 다시 한 번 군복을 입었다. 군 제대 후 첫 작품이지만 이미지 변신에 대한 압박이나,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갈증은 없었다.

“역할의 직업은 개척이 많았어요. 대본을 보니까 욕심이 많이 났고, 역할이 좋아서 선택한 거고요. 이미지 변신도 제가 계획 세우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본이 좋고 역할이 좋으면 그게 제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송중기는 다시 군복을 입음만큼 좋았던

‘태양의 후예’ 극본을 “생애 최고의 대본”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그 좋은 대본을 연기로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100% 사전제작으로 진행된 탓에 다른 드라마에 임할 때보다 조금 더 욕심을 냈다.

“시간이 없었다. 바빴다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더 잘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본을 뛰어 넘는 연기를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반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고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강모연’(송혜교)과의 멜로와 다소 거북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대사가 자연스럽게 설렘으로 연결되는 건 송중기의 연기뿐 아니라 깨끗하게 잘생긴 얼굴 덕이다.

송중기는 이번 드라마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여성의 이상형이 됐다. 김수현 이민호를 잇는 차세대 한류스타로 거듭났다. 중국에서의 신드롬으로 현지 공안부가 ‘송중기 상사병’ 위험 경고를 내렸을 지경이다.

“기사를 보고 느끼는 정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해외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머리에 드라마 방영이랑 다음 작품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서, 회사 매출은 좀 달라지겠죠.”

/인진수기자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차세대 한류스타로 거듭난 송중기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 영화 ‘싱글라이더’ 합류

2000년대 후반을 휩쓴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연기자 안소희(24)가 ‘싱글라이더’(가제)에 합류했다.

‘싱글라이더’는 워너브러더스코리아가 투자·배급하는 두 번째 한국영화로 이병헌(46)과 공효진(36)이 부부로 나온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드라마다.

21일 프랑크푸르트 앞두고 이병헌은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예측불허의 미스터리 전개와 호주라는 이국적이면서도 낯선 공간이 주는 매력에 완벽하게 매료됐다.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움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효진은 “시나리오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으로 읽는 내내 전율을 느꼈다”고 전했다. 안소희는 “이병헌 공효진 선배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대한배구협회, 여자대표팀 후보 엔트리 발표

대한배구협회(회장 박승수)가 2016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다투는 세계예선전에 나설 여자 배구대표팀 후보 엔트리를 17일 발표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후보 엔트리에는 터키 페네르바하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연경을 필두로 김희진, 박정아(이상 IBK기업은행), 양효진(현대건설), 이재영(흥국생명) 등 V-리그 대표급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염혜선(현대건설)과 배유나(GS칼텍스), 김해란(도로공사) 등 경험있는 선수들도 재차 합류해 힘을 보탠다. 세터 김사니(IBK기업은행)는 제외됐다.

이정철 감독은 “큰 대회를 앞둔 만큼 경험과 노련함이 중요하다. 특히 세터와 리베로 등 특정 분야에서는 더욱 경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대표팀 구성 방향을 설명했다.

올림픽예선전은 5월14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 카자흐스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이탈리아, 도미니카, 네덜란드, 페루 등 총 8개국에 참가한다. 가장 성적이 좋은 아시아 1개 팀과 이를 제외한 상위 3개 팀이 리우올림픽에 나선다.

여자대표팀은 다음달 3일 진천선수촌에 소집돼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이들 중 14명만이 세계예선전에 출전한다.

/김민근 기자

김현수 첫 멀티히트에 득점까지...스프링캠프 이후 최고 타격

시범경기 타율 0.097에서 0.147로 올라 다시 1할대 복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1경기 2안타 이상)와 함께 첫 득점을 올렸다.

김현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 에드 루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6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에 3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안타 없이 두 차례 출루했던 김현수는 2경기 만에 다시 안타를 기록하며 5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시범경기 타율을 0.097에서 0.147(3타수 5안타)로 다시 1할대로 복귀했다. 이날 경기에서 시범경기 첫 득점도 올렸다.

시범경기 첫 7경기에서 안타 없이 삼진만 세 차례 당했던 김현수는 지난 11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첫 안타를 신고한 후 최근 5경기 13타수 5안타, 타율 0.385의 상승세다.

출발은 아쉬웠다. 2회말 1사 1루에 주자를 두고 첫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피츠버그 우완 선발 투수 후안 니카시오를 상대로 5구째 때렸으나 유격수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 타구로 1루 주자 크리스 데이비스가 2루에서 아웃되는 바람에 유격수 땅볼로 기록됐다. 1루를 밟은 김현수는 후속타로 발로 추가 진루는 하지 못했다.

첫 안타는 두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팀

이 0-3으로 뒤진 5회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두 번째 투수 재러드 휴즈를 맞아 유격수 방면으로 향하는 타구를 날렸다.

피츠버그 유격수 조디 머서가 접프하며 공을 잡으려다가 글러브를 맞고 떨어지며 안타가 됐다. JJ 하디의 좌전 안타로 2루까지 진루한 김현수는 조나단 스몰의 스피린 홈런 때 홈을 밟아 시범경기 12경기 만에 첫 득점을 올렸다.

김현수는 팀이 3-3 균형을 이룬 6회 2사 1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았다. 피츠버그 세 번째 투수 아르키메데스 카미네로가 김현수의 타석 때 폭투를 범하며 주자 2루가 됐다.

이후 카미네로의 공을 밀어 때린 김현수는 3루수 방면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김현수의 내야 안타로 2사 1, 3루 기회를 이어간 볼티모어는 하디의 적시 2루타로 4-3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김현수는 7회 수비때 LJ 호스와 교체되며 이날 경기를 마무리했다.

볼티모어는 7회 대거 4점을 추가하는 등 피츠버그를 9-3으로 꺾고 시범경기 3승(11패)째를 달성했다.

경기 후 박 쇼월터 감독은 “김현수가 스프링캠프 시작 이후 최고의 타격을 했다”며 “오늘 타석에서 두세번은 한국에서의 모습이 나왔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에 따르면 김현수는 경기 전날 밤 타격 컨디션 찾기를 위해 벅 쇼월터 감독과 함께 KBO리그에서 활약한 당시의 타격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봤다.

/김민근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 올해 투어 대회 12개로 확정

올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투어 대회는 총 12개로 확정됐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17일 2016년도 KPGA 코리아 투어 일정을 잠정 발표하며 “허반가게 3~4개의 전국순회투어 대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대회 수를 유지했다”며 “침체된 투어의 활성화 일환으로 전국순회투어 창설을 위해 부산, 대구, 경기, 전북,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두 차례 대회를 열었던 바이네트오픈이 내부 사정으로 올해는 취소된 가운데 최경주 인비테이셔널(KI Chi Invitational)이 새롭게 추가됐다.

안희부 KPGA 회장은 “5개 자치단체들과는 이미 대회 개최에 상당한 접근을 이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연내 몇 개라도 대회가 창설된다면 전국순회투어가 향후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투어의 형태를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